

한문 I 정답

1	①	2	④	3	③	4	③	5	②
6	①	7	④	8	②	9	⑤	10	②
11	⑤	12	③	13	④	14	③	15	④
16	①	17	⑤	18	⑤	19	③	20	⑤
21	③	22	⑤	23	③	24	①	25	②
26	⑤	27	②	28	①	29	②	30	④

해설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살다'를 뜻하는 것은 '居'이다.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ㄱ. 몸, ㄴ. 옳다 - 그르다, ㄷ. 크다, ㄹ. 강하다 - 약하다
- [출제의도] 일상용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① 명분 ② 청운 ③ 간과 ④ 향배 ⑤ 통행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주어진 조건에 맞는 것은 '공손하다(恭)'이다.
- [출제의도] 학습 용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난도(難度)'와 '도수(度數)'는 각각 체육과 수학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이다.
-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안목은 '보는 눈'이라는 뜻으로,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 또는 주된 목표를 뜻하는 말이다.
-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가로 열쇠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이고, 세로 열쇠는 '결초보은(結草報恩)'이다.
- [출제의도] 일상용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① 성장 ② 이용 ③ 협동 ④ 정지 ⑤ 보존
- [출제의도]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① 들다(회) ② 날다(비) ③ 법(물) ④ 집(가) ⑤ 구르다(전)
-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제시된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는 '등하불명(燈下不明)'이다. '등잔 밑이 밝지 않다.'라는 뜻으로, 가까이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잘 찾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 [출제의도]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안빈낙도(安貧樂道)는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즐김.'을 뜻하는 성어이다.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① 맑다(청) ② 집(실) ③ 차다(실) ④ 말씀(어) ⑤ 귀하다(귀)
- [출제의도]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자 한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의미이다.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천하에 얻기 어려운 것은 형제요, 구하기 쉬운 것은 전답이다.  
지혜로운 사람도 천 번의 생각(중에) 반드시 한 번은 잃는 것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천 번의 생각(중에) 반드시 한 번은 얻는 것이 있다.

'얻다'를 뜻하는 '득(得)'은 의미상 '실(失)'과 상대된다.

1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대개 천하의 일은 은미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저한 것에 이르고, 미세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것에 이른다.

蓋天下之事，自微而至著，自細而至大。

16. [출제의도]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앞일을 잊지 않는 것은 뒷일의 스승이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7. [출제의도]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① 나의 허물을 꾸짖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다. ② 물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말은 나오면 다시 거두기 어렵다. ③ 배움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으니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나게 된다. ④ 보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만 못하고, 아는 것은 그것을 행동하는 것만 못하다. ⑤ 여유가 있기를 기다린 뒤에 남을 구제한다면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18~20]

관중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 곤궁했을 때 일찍이 포숙과 더불어 장사를 하였는데 재물과 이익을 나눌 때 스스로에게 주기를 많이 하였는데 포숙이 나를 탐욕스럽다고 하지 않은 것은 나의 가난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이 포숙을 위하여 일을 도모하였으나 더욱 곤궁해졌거늘 포숙이 나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은 것은 때에 유리하고 불리함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이 세 번 베풀어 세 번 임금에게 내쫓김을 당하였으나 포숙이 나를 못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은 내가 때를 만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중략> 나를 낳아 준 사람은 부모요,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 ㉡, ㉢의 행위 주체는 '관중'이고, ㉣의 행위 주체는 '포숙'이다.

19. [출제의도] 단어의 짜임을 이해한다.

① 수식 관계 ② 주술 관계 ③ 병렬 관계 ④ 술보 관계 ⑤ 술목 관계

20. [출제의도]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제시된 글은 친구의 우정에 대한 성어인 '관포지교(管鮑之交)'의 유래를 말하고 있다.

[21~22]

호랑이가 모든 짐승을 구하여 먹으려다가 여우를 잡았다. 여우가 말하길, "그대는 감히 나를 잡아먹을 수 없다. 하느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게 하였으니, 지금 그대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이는 하느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대가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여기면 내가 그대를 위하여 먼저 갈 것이니 그대는 내 뒤를 따라와 모든 짐승이 나를 보고서 감히 달아나지 않는지를 보아라."라고 하였다. 호랑이가 그렇다고 여겨서 드디어 그와 더불어 가니 짐승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달아나거늘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여 달아나는 것을 모르고 여우를 두려워한다고 여겼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은 '우두머리'로 쓰였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以爲는 '~라고 여기다.'로 풀이한다.

[23~24]

무엇을 일러 때라 하는가? 봄은 파종할 때이고, 여름은 김매 때이고, 가을은 수확할 때이다. <중략> 무릇 군자가 학문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다. 학문의 시기는 반드시 젊은 나이에 있다. 젊어서 학문에 힘쓰지 않으면 늙어서 그 시기를 놓친 것이니 농부가 봄에 (파종 시기를) 잃으면 가을에 (수확이) 없는 것과 같다.

23. [출제의도] 글을 이루는 단어를 바르게 읽는다.

'소장(少壯)'은 '젊은이'를 뜻한다.

2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농사와 마찬가지로 배움 또한 시기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25~26]

(가) 눈빛이 종이보다 희길래, / 채찍을 들어 이름자를 적었네. / 바람아 눈을 슬지 마라, /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렴.

(나) 가을 그늘 고즈넉하고 온 산은 비었는데, / 낙엽은 소리 없이 땅에 가득 붉구나. / 시내 다리에 말을 세우고 돌아갈 길을 묻는데, / 몰랐네 내 몸이 그림 속에 있는 줄을.

25. [출제의도]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 이른다.

26. [출제의도]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가)는 시적 화자가 눈 오는 날 친구를 찾아갔다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눈 위에 적은 이름으로 대신하지만 이것이 바람에 날려 버릴까 마음 졸이고 있는 내용이다. (나)는 숨어 사는 친구를 찾아가는 길에 만난 풍경과 산속에서 길을 잃고 고민하는 자신이 한 폭의 그림 속에 있음을 깨닫고 있는 내용이다.

[27~28]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에 왕 노릇하는 것은 더불어 있지 않다. 부모가 모두 계시고 형제가 사고 없는 것이 첫째 즐거움이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 인간에게 부끄럽지 않음이 둘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함이 셋째 즐거움이다.

2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2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천하에 왕 노릇하는 것'은 군자의 즐거움에 해당하지 않는다.

[29~30]

안용복은 왜국말을 잘하였다.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 잡고 채취하다가 표류하여 울릉도에 이르러 잡혀서 대마도로 들어갔다. 이에 말하기를 "울릉은 우리나라와의 거리가 하룻길이고 왜와의 거리가 닷새 길이니 우리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냐? 조선 사람이 스스로 조선 땅에 갔거늘 어찌 잡느냐?"

29.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① 선악 ② 선전 ③ 선량 ④ 적선 ⑤ 권선

3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